

# 보수야당 “차 구속연장 막아라”

### 홍준표 “정치적 실패 정치적으로 마무리...베풀 줄도 알아야”

### 정우택, 영장 재발부 관련 “법리적으로 봐서 대단히 문제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이 1주일이 앞으로 다가오자 보수야당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풀어내려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며 “곧 지방선거까지 활용하

기 위해 구속연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 결정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IMF 국난을 초래했던 YS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는 않았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홍 대표는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집착하면 그 때부터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며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위한 영장 재발부



5부요인과 환담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총무전실에서 5부요인 오찬 회동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봐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식으로 구속을 연장한다면 건별로 연장해나갈 수 있는 어떤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기에 어떤 물사들에게 물어봐도 불합리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내 의원들 간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며 ‘오늘부터 수많은 애국국민들과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역대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찬탈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는 잔인한 정치보복을 버섯이 자행하고 있는 좌파 독재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죄석방, 불구속수사 이것이 저와 애국국민들의 단식 목표”라며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호 기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 적폐청산 vs 무능심판 與野 국감기조 온도차

여야 원내대표들이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놓고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11월 법안·예산심사, 선거제도 개편 등에 있어 여야간 협치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에 대한 지적과 외교·안보 문제 등 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추석 연휴 동안 청취한 민심을 교환하고 국정감사 등의 향후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예산 심사,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큰 과제가 있다”며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해 이런 논의는 공개적으로 야당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저희들로선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입하기로 했다)”며 “안보·경제·인사 등 무능문제, 졸속 정책,

좌파 포퓰리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정책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여당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보복 성격을 띄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그런 표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MB정부 이전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적폐는 왜 놔두는 것인지, 또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유리한 건들만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고 우리 그것을 원조적폐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조적폐를 파헤칠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노동강전선의 의미”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이 과정에서 파헤치겠지만 자유한국당 나름대로의 대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상황이 위중하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돼 향후 집권 기간동안 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정책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보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탄핵 당하고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고 그 탄핵을 받고 집권한 정권이 또 그 뒤를 파헤쳐서 적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보수를 써 말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받은데 대한 보복 감정 아니냐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 남경필 “유승민에 당 살릴 기회줘야”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유승민 의원에 당을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유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유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우리 당 후보였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개혁보수의 대표주자 중 한 분”이라며 “그런 유 의원의 뜻을 존중하고 당을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이 자강론, 통합론 논쟁으로 어수선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논쟁은 당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무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철 “한미FTA 재협상, 국회 절차 또 무시...협치 실종”

#### “대책·전략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합의에 대해 “또 다시 공청회 및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다시 한번 협치는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FTA 폐기 불사하겠다는 수출 개정 압박을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개정협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도

전략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통상절차법 따르면 통상조약 개정을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국회 비준동의의 요건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한미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했다.

그는 “사드배치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거론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이후 정작 사드배치 조기배치를 결정하면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때그때마다 팽팽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과 기조 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감·미래창조·정몽규특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